

중국어교육 3.0 시론*

정윤철**

目 录

1. 들어가기
2. 중국어교육 3.0 개념 정립
 - 1) 중국어교육 1.0과 2.0 : 양적 팽창의 단계
 - 2) 중국어교육 3.0 : 질적 전환의 단계
3. 중국어교육 3.0의 실현 방안
 - 1) All-Line 통합형 중국어교육
 - 2) 단렬형 중국어교육
 - 3) 문제해결형 중국어교육
4. 나오기

1. 들어가기

최근 국내에서는 이른바 ‘교육 3.0’이라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교육 3.0’은 급격한 ICT의 발전에 따른 미래형 교육 시스템으로 이해되는데, 교육과학기술부와 대통령 직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2011년 6월 29일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향후 대한민국의 교육개혁전략으로 채택한 바 있다. 또 2015년 6월 4일에 한국정보처리학회가 주최하고 한국정보처리학회, 이브릿지(e-Bridge)연구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공동 주관하는 교육3.0포럼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개최되었는데, 이 포럼에서는 ‘고등교육의 미래’,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미래교육 혁신’이라는 주

* 이 논문은 2016년도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釜山外國語大學校 G2비즈니스融合學部 副教授

제로 관련 전문가들의 발표가 있었다. 이 날 포럼에는 교육부총리·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등 관련 기관장들이 참석하였는데, 이는 ‘교육 3.0’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설정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급격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사회의 각 영역에 큰 변화를 주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교육영역에도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변화를 이룰 것임은 분명하다. 본고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국내 중국어교육이 어떠한 발전적 지향점을 찾아야 할까라는 물음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내 중국어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고 ‘중국어교육 3.0’이라는 새로운 어젠다를 제안할 것이며, 초보적이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중국어교육 3.0의 개념 정립

1) 중국어교육 1.0과 중국어교육 2.0 : 양적 팽창의 단계

한국에서의 중국어교육은 1992년 한중수교를 기점으로 중국어 학습에 대한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큰 발전을 이루어왔다. 또 이러한 학습 열기는 자연스레 연구 집단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중국어교육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높아져 다양한 연구논문이 발표¹⁾되었고 2005년에는 ‘한국중국어교육학회’가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또 많은 중국인교수가 한국대학에 오게 되면서 한중 학자들 간의 교류도 활발해졌고 세계한어교육학회에 참여하는 한국학자와 해당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에도 다양한 한국의 중국어교육 관련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한중수교 이후의 한국의 중국어교육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이전 시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여 발전해 오고

1) 이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 결과는 박은미·위수광·임춘영(2012), 박경송·심지연(2012), 양춘기·최재수(2012), 오현주·노수미(2012) 참조.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내 중국어교육의 발전 단계라는 각도에서 우선 해방 이후 한중 수교 이전(이하 ‘수교 이전’)까지와 한중 수교 이후 현재까지(이하 ‘수교 이후’)를 각각 하나의 단계로 구분하고자 한다. 이 두 단계가 지니는 차이점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 기관의 확대이다. ‘수교 이전’에 중국어교육은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을 중심으로 진행된 반면, ‘수교 이후’에는 교육 기관의 범위가 중등, 초·등기관까지 확대되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많은 사설교육기관이 설립되어 교육기관이 범위가 폭 넓게 확대되었다.

둘째, 학습층의 확대 및 다양화이다. 1992년 이전의 중국어교육은 주로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을 중심으로 한 성인교육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수교 이후 중등교육으로 확장되었고 현재는 유아 및 초등교육²⁾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셋째, 교육 공간의 확대이다. ‘수교 이전’은 전통적 교실 수업 중심이었지만, ‘수교 이후’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많은 강좌가 개설되었고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다양한 교수법이 도입되었다.

넷째, 교육 목표의 변화이다. ‘수교 이전’에는 각 대학의 교육과정은 중국어 문학 중심이어서 중국어교육이 하나의 독립적이고 체계적인 영역이 되지 못했으나, ‘수교 이후’에는 의사소통기능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각 대학의 교육과정에서 중국어교육이 체계성을 지닌 영역으로 자리 잡았으며, 학습대상이 중등·초등 및 비전공자로 확대되면서 의사소통 중심의 교육이 더욱 강화되었다. 또 각 대학의 교육과정에는 언어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관광·통상 등 실무영역과의 결합형 교육과정이 크게 확대되었다.

다섯째, 원어민 교사의 급증이다. ‘수교 이전’은 국내 중심, 국내 교사 중심의 교육이 주를 이루었으나, ‘수교 이후’는 한중 수교의 영향으로 많은 학생이 중국으로 유학을 가고, 또 많은 대학에 중문과가 설립되어 중국인교수가 대량으로 유입됨에 따라 중국 현지에서의 교육이 증가하고 중국인 교수의 교육

2) 김민영(2016) 참조.

담당 비율이 높아졌다.

이상에서 국내 중국어교육의 현황을 ‘수교 이전’과 ‘수교 이후’의 두 단계로 나누어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이 두 단계의 차이점은 교육기관, 학습층, 교육 공간, 교육목표, 교사층 등 교육의 각 방면에서 많은 확장을 하였다는 것인데, 이를 종합하면 ‘양적 팽창’이라는 키워드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양적 팽창’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수교 이전’을 ‘중국어교육 1.0’, ‘수교 이후’를 ‘중국어교육 2.0’으로 명명한다. 변증법에는 ‘양질전환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양적 변화가 일정 단계에 도달하면 질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법칙이다. ‘중국어교육 3.0’은 ‘중국어교육 1.0’에서 ‘중국어교육 2.0’에 이르면서 축적된 양이 질적으로 변하게 되는 변곡단계라고 할 수 있다.

2) 중국어교육 3.0 : 질적 전환의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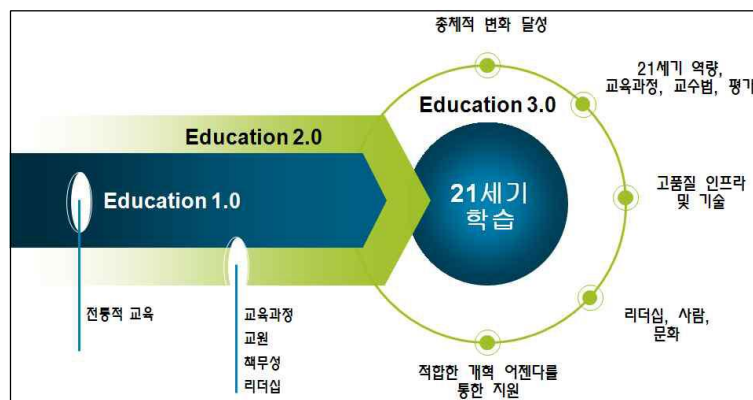
(1) 중국어교육 3.0

‘중국어교육 3.0’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러한 개념의 도출 배경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다음에서는 몇 가지 도출 배경에 대해 살펴본다.

① 교육 3.0의 대두

먼저, ‘중국어교육 3.0’이라는 개념을 도출하게 된 가장 주된 배경은 앞서 언급했던 ‘교육 3.0’이라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의 출현이다. ‘교육 3.0’은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교육의 진화적 개념이다. 즉 명칭 자체에서 ‘교육 1.0’, ‘교육 2.0’이라는 두 개의 단계를 내포하고 있으며 상위 단계는 이전 단계에서 발전된 단계를 의미한다. ‘교육 1.0’, ‘교육 2.0’은 본래 있던 개념이 아니라 ‘교육 3.0’에 의해 과거가 재해석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교육 3.0’은 어떻게 정의내릴 수 있으며 ‘교육 1.0’, ‘교육 2.0’과는 어떠한 차이를 지니는 것인가? ‘교육 3.0’은 여러 가지 광의, 협의의 정의가 있는데, 그 중 ‘글로벌

교육지도자 프로그램(GELP:Global Education Leaders' Program)³⁾에서 제시한 개념이 가장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먼저 GELP에서 제시한 개념을 살펴본다.



위 그림에서 보듯이, 교육 1.0은 학생이 전통적 교육시스템에서 학교에 모여 교사의 지도 아래 교육을 받는 시기의 교육이며, 교육 2.0은 다양한 교육과정과 교육의 책무성을 강조하며 학력 향상을 위해 학교 차원의 개선을 추구하던 시기의 교육이다. 반면 교육 3.0은 학생 누구나 21세기가 요구하는 고차원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교육과정, 교수학습법, 평가체제의 총체적 개혁을 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이라 할 수 있다.⁴⁾ 교육 3.0의 교육 목표는 기존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그 지식을 활용해 사고력, 협업역량, 공감력

3) GELP(Global Education Leaders' Program)는 글로벌 차원의 교육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추진되는 교육혁신 연구와 경험을 공유하면서 각 국가 또는 권역에 적합한 교육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하기 위해 협력하는 글로벌 네트워크이다. 현재 호주, 핀란드, 한국 등 14개 국가 혹은 교육자치단체 대표와 5개 글로벌 파트너들이 참가하고 있다.

4) 천세영 외, 『스마트교육 정책 성과 지표 개발 연구』, 서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3, p33-34 참조.

등 핵심역량을 키우는데 있으며, 평가방법 또한 기존 지식의 암기나 이해 정도를 측정하기 보다는 역량을 평가하는데 초점을 둔다. 또 교사는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기 보다는 지식을 활용해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추고 집단지성의 세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학생은 학습 과정의 주체적 참여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지식을 학습하고 창출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 3.0체제에서는 상호작용적 학습이 가능할 수 있는 ICT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⁵⁾ 이렇게 볼 때, 교육 3.0은 'ICT의 빠른 발전으로 인해 21세기 사회가 요구하는 학습자의 새로운 역량을 키우기 위해 ICT와 결합된 새로운 교육 시스템'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학습생태계(learning eco-system)를 구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학습생태계가 공간과 시간의 제약, 정규 학습과 비정규학습의 분리, 전통적인 교사와 학생의 역할 유지 등의 특징을 지녔다면 새로운 학습생태계를 이러한 한계들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 '교육' 및 '학습'의 정의를 새롭게 바꾸고 있다. 국내 대학 중에서 KAIST가 가장 선도적으로 교육 3.0에 기반한 교육모형을 추진하고 있는데, KAIST가 제시하고 있는 교육 3.0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⁶⁾

전통적 교육	KAIST Education 3.0
교수가 지식적 우위	인터넷 발달로 교사와 학생의 지식접근 동일
많은 지식 소유가 중요	지식의 융합과 활용이 중요
교수 중심 교육	학습자 중심 교육
Contents 전달 중심	Context 조성 중심
특정 지역에서 교육	교육의 지역적 한계를 탈피
Routine Manual Skill	Nonroutine Interactive Skill

5) 천세영 외, 『스마트교육 정책 성과 지표 개발 연구』, 서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3, p35 참조.

6) http://celt.kaist.ac.kr/html/index.php?id=sub01_01_01(카이스트 교수학습혁신센터) 참조.

KAIST에서는 우선 교육 1.0과 교육 2.0을 구분하지 않고 ‘전통적 교육’이라는 프레임에 통합시켰는데, 이는 양자의 차이가 질적 차이보다는 양적 차이에 불과하다는 판단일 것이다. ‘KAIST Education 3.0’에서 제시하고 있는 특징들과 GELP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육 3.0의 특징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는 글로벌 교육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인재를 요구한다. 이러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학생 중심의 교육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ICT의 발달은 시공간적 제약 탈피, 정규와 비정규 교육의 통합, 학생 맞춤형 교육 등 학생 중심의 교육을 실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러한 교육방법론의 변화를 통해 창의적이며 융합적 사고력을 지닌 21세기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

② 중국어교육의 목표 재정립

최근 국내 대학은 학령인구 감소, 청년 실업률 증가 등 제반 외적 환경 요인으로 인해 학문단위의 구조조정 압박을 받고 있다. 최근 교육부에서 추진한 대학특성화사업(CK),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CORE),프라임사업(PRIME) 등은 이러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압박은 어문계열을 포함한 인문학에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다.⁷⁾ 이러한 상황 속에 비인기 외국어학과가 폐과되고 영중일 관련 학과들도 소위 ‘융합’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듯 기존 ‘중어중문학과’, ‘중국어과’로 대표되던 전통적 학과들이 점차 ‘중국어비즈니스학과’, ‘중국통상학과’, ‘중국문화관광학과’ 등으로의 변화되고 있다.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학과의 교육과정이 부합하지 못한다면 변화가 필요하며 학과의 교육목표도 바뀌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융합형 학과나 교육모델은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의 중국어 융합형 학과나 모델은 대체로 ‘중국어+

7)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의 경우, 대학의 인문학 진흥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교육부가 제시한 모델에는 인문융합 모델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는 인문융합형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α'의 구조이다. 즉 중국어를 기초로 하여 통상, 관광, 경영 등이 접목된 형태이다. 이 경우 융합의 무게 중심은 'α'에 있게 된다. 즉 교육 과정 변화의 중점이 중국어교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더 결합할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이는 융합이 아니라 조합에 가깝다. 물론 조합형 교육도 경우에 따라서는 중요하다. 예를 들어 상경계 학생이나 이공계 학생의 경우라면 중국어교육이 조합적 형태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어를 전공하는 학생이라면 교육의 구조 형태가 달라져야 한다. 중국의 제도와 인간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조합형 교육으로는 한계가 있다. 중국에 대한 피상적 이해는 중국어라는 도구가 없어도 되지만 심층적 이해를 위해서는 중국어라는 도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현재의 중국어교육이 교육 3.0에서 말하는 '글로벌 교육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학생 중심의 교육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고해야 하며, 이 점에서 중국어교육의 교육목표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교육 3.0에서 제시하고 있는 글로벌 인재의 핵심역량은 자기주도성, 사고력, 협업역량, 공감력, 융합능력 등이다. 이러한 역량은 교육의 최종적 결과물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관점을 바꾼다면 교육의 방법론이 될 수 있다. 즉 '자기주도적', '사고력을 강화한', '협업적', '공감적', '융합적' 중국어교육으로 대치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해당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중국어교육의 목표를 역량과 연결지음으로써 목표와 방법이 통합된 새로운 목표 정립을 할 수 있으며 이것이 중국어교육 3.0의 핵심 가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③ 국내 CSL 환경 구축 필요성

국내의 중국어교육은 CFL(Chinese as a Foreign Language)에 속한다. 현재 많은 대학의 중국어 학습자들은 중국어구사능력 향상을 위해 대부분 '7+1', '3+1', '2+2'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중국으로 유학을 가고 있다. 학습자 입장에서 보면 학습환경이 CFL 환경에서 CSL(Chinese as a Second Language)환경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CFL'환경과 'CSL'환경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차이를 지닌다.⁸⁾

'CFL'환경	'CSL'환경
중국어의 사용이 주로 교실에 국한되므로 듣고 말 할 수 있는 기회의 양이 매우 적다.	중국어의 사용이 교실뿐만 아니라 교실 밖에서도 이루어지므로 듣고 말할 수 있는 기회의 양이 이상적으로 많다.
대부분 우리말과 중국어를 섞어서 수업을 한다.	중국어로만 수업한다.
다인수 학습이 많다.	소인수 학습이다.
듣기·말하기·읽기·쓰기의 언어기능 훈련은 주로 교과목에 의해 이루어진다.	언어기능의 훈련은 교과목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통해 꾸준히 이루어진다.
주로 학습(learning)이 이루어진다.	습득(acquisition)의 성격이 강하다.

학습자의 중국어능력 향상이라는 점에서 볼 때, 중국이라는 'CSL'환경에서 학습하는 것이 'CFL'환경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은 틀림없다. 하지만 중국 유학이 일반화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의 증가, 유학 경험자와 비경험자의 중국어구사능력 차이 확대, 전공 중국어교육과정에 대한 흥미 저하 등 여러 가지 문제점도 적지 않다. 특히 'CFL'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는 것도 'CSL'환경에서 학습하는 학습의 중복성과 편향성이 점차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내의 학습환경을 'CSL 환경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국내의 학습환경을 'CSL 환경화'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위 표에서 제시한 'CSL'환경의 핵심특징인 일상생활에서도 중국어에 노출되어 자연스럽게 중국어를 습득하는 것이 실현될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필자는 'CSL 환경화'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국내 각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의 활용에서 찾고 있다. 현재 각 대학에는 적게는 2~3백명에서 많게는 1천 명 이상의 중국인 유학생이 있으며 외국인 유학생 중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어교육의 각도에서 볼 때, 이들 유학생은 질적 차이는 있지만 활용 가능한 '원어민 교

8) 표는 안수웅((1992), 손중선(2008)에서 제시된 ESL환경과 EFL환경의 차이를 중국어에 적용시켜 정리한 것이다.

사'이다. 한국 학생들은 이들을 통해 중국어를 배우고 중국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또 다른 각도에서 볼 때는 한국 학생과 중국 학생은 동 시대를 같이 살아야 하는 미래의 파트너이기도 하다. 이들이 함께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국내 중국어 학습 환경을 'CSL 환경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감과 협업능력을 이끌어 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중국어교육 3.0'의 제안의 배경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중국어교육 3.0'의 개념을 정립하고자 한다. 먼저 '중국어교육 3.0'은 현재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으로 대두되고 있는 '교육 3.0'의 핵심가치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재 국내 '교육 3.0'이라는 어젠다가 ICT 기반이라는 기술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정보통신학계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아직은 외국어 교육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본고에서는 초보적이지만 중국어교육이라는 개별 외국어교육의 특징을 접목하여 다음과 같이 개념을 제시하고자 한다.

- '중국어교육 3.0'의 교육목표 : 21세기 글로벌 교육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학생 중심의 중국어교육을 추구한다.
- '중국어교육 3.0'의 인재상 : 자기주도성, 사고력, 협업역량, 공감력, 융합능력을 토대로 중국의 제도와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인재
- '중국어교육 3.0'의 실현 전략 : ①'자기주도적', '사고력을 강화한', '협업적', '공감적', '융합적' 중국어교육 방법론 구현 ② 국내의 중국어 학습환경의 'CSL 환경화' 구현

(2) 중국어교육 1.0과 중국어교육 2.0의 한계

앞 절에서 초보적이지만 '중국어교육 3.0'의 개념을 정립하였다. 그러면 이러한 개념에 근거할 때 '중국어교육 1.0'과 '중국어교육 2.0'은 어떠한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 다음에서는 이러한 한계들에 대해 살펴본다.

첫째, 스마트교육에 기반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이 아직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현아 외(2015)에서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 중국어교육 관련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였는데, 이 시기 관련 연구의 한계점으로 스마트교육이라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가 중국어교육에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교수학습법에 대한 연구 비율이 낮고, 교수학습법 연구도 학습자의 연령, 수준, 상황 등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학습자 전반에 대한 연구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드러나고 있다.⁹⁾ 교육 현장에서도 여전히 교실 중심, 교재 중심의 교육이 주를 이루며 컴퓨터는 강의의 보조 수단으로만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여전히 교실 중심의 시·공간 제약형 교육 시스템에 머물러 있다. ‘중국어교육 2.0’에서는 온라인 기반의 강좌가 많이 개설되고 있지만 이는 대부분 사설교육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강좌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HSK 시험 대비과정이다. 대학을 중심으로 한 공교육 기관에서의 교육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다.

둘째, 중국어교육의 목표가 재정립되지 않아 교육 방법론이 전통적 외국어 교수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외국어학습의 목적은 ‘무엇을 아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해결할 수 있는가?’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역량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언어적 의사소통역량 강화를 위한 교수법 개발에 목표를 두었다면 이제는 문제해결에 필요한 자기주도성, 사고력, 협업역량, 공감력, 융합능력 등 다양한 역량을 키워낼 수 있는 융합적 교수법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현장 교육에서는 문제해결 중심의 중국어교육을 통해 학습자의 문제해결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와 관련된 논의가 부족하고 교재 개발 역시 거의 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셋째, 협업형 교육이 부족하다. 우선 현재 많은 중국인 교사들이 한국의 중국어교육계에 종사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보수교육이나 한국인교사와의 협력형 교육 모델의 개발 등이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다.¹⁰⁾ 교사 간의 협업형 교육은 오프라인 뿐만아니라 온라인 교육을 활용할수도 있으며, 국내 대학과 중국 대학 교사 간의 상호 연계 교육 모델도 개발될 수 있다. 또 한국 학생과

9) 이현아 외(2015:205) 참조.

10) 劉辰(2015) 참조.

중국 학생 간의 협업형 교육도 CSL환경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방법론이 될 수 있으나 아직 논의가 활발하지 않는 상황이다.

3. 중국어교육 3.0의 실현 방안

1) All-Line 통합 중국어 교육

앞장에서 언급한 대로 교육 3.0은 ICT와 결합된 새로운 교육 시스템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ICT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개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별 대학에서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¹¹⁾ 그러므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개강의 플랫폼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공개강의 플랫폼은 대학공개강의 플랫폼인 KOCW와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인 K-MOOC가 있는데, KOCW에는 약 112개의 중국어 강좌가 개설되어 있고 K-MOOC에는 아직 외국어교육 강좌는 없다. 온라인 기반의 중국어교육은 아직 KOCW 등 일부 플랫폼에만 한정되어 있고 아직까지 국내 대학의 교육방식이 교실 중심이라는 점에서 볼 때, 현재로서는 스마트 환경을 활용하는 All-Line 통합 교육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All-Line 통합 교육은 On-Line과 Off-Line을 접목한 방법으로 학습의 시공간적 제약을 낮추고, 학습자의 자기주도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All-Line 통합 교육은 두 가지의 방식이 가능하다. 하나는 KOCW에 개설된 기존 공개강의 혹은 자체 제작한 온라인 강의자료를 플립 러닝(Flipped Learning, 역진행 학습)의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혼합형 학습)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국내의 중국어교육에 플립 러닝을 활용한 연구보고는 현재까지는 임지영(2015)외에는

11) 예를 들어 K-MOOC 강좌 개발의 경우 1개 강좌 개발에 약 5천만원의 개발비가 들어간다.

보이지 않는다. 임지영(2015)은 중국어 어법수업의 모형을 플립 러닝의 일반적인 모형에 기반하여 설계하고 있는데, 실제 수업에 적용한 사례는 아니어서 실천적 효과를 검증할 수는 없지만 강의식·주입식 중심의 어법수업에 플립 러닝을 도입하여 학생의 자기 주도성을 강화하려는 시도는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중국어교육에 블렌디드 러닝을 활용한 연구보고로는 최윤경(2011), 박찬욱(2011, 2012) 등이 있다. 최윤경(2011)은 기초중국어 수업에 블렌디드 러닝 방식을 도입하였는데, 수업모형과 온라인콘텐츠 제작 방법 및 설문결과를 제시하였다. 최윤경(2011)에 따르면 블렌디드 러닝 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92%로 매우 높았으며, 온라인 수업은 설명 위주, 오프라인 수업은 회화 위주로 진행된 수업 방식에 대해서도 92%로 매우 높았다. 박찬욱(2011)은 중급 중국어회화 수업에 블렌디드 러닝을 활용하였는데, 회화수업이라는 특성에 비추어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의 진행분량에 대한 조정 또는 주와 차를 구분한 온라인 수업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블렌디드 러닝에서 오프라인 수업의 설계가 중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박찬욱(2012)은 최윤경(2011)과 박찬욱(2011)에서 제시된 블렌디드 러닝을 활용한 중국어 말하기 교육 모델을 수정, 보완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오프라인 수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접근들은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중국어교육에 온라인 교육이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중국어교육에 있어서 플립 러닝과 블렌디드 러닝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합적으로 활용한 교육모형 설계나 교수법 개발이 초보적 단계에 머물고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통합적 교육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언어요소 교육과 언어기능 교육 등 각각의 교육영역에서의 교육모델 개발, 학습목표 실현을 위한 온라인 강의와 오프라인 강의의 내용과 진행 방식의 분업, 온라인 강의 제작 및 공개강의 활용 방법 등 All-Line 통합 중국어교육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시도가 이루어져 할 것이다.

2) 탄뎀형 중국어교육

‘탄뎀(Tandem)’은 ‘두 사람이 함께 타는 자전거’를 뜻하는데, 그 개념이 외국어교육에 활용되어 두 개의 서로 다른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학습자 두 명이 서로 상대방의 말을 가르치고 배우는 자기주도 기반의 협동학습을 뜻하게 되었다. 학생은 자기 스스로 학습계획과 내용을 설계하고 파트너와의 상호 보완적 학습활동을 통해 자신의 학습 성취를 이루어 나간다.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대학에서는 2009년부터 탄뎀을 교실 중국어 교육 영역에 도입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탄뎀의 적용영역을 비교과영역인 기숙형 탄뎀과 탄뎀존 활동으로 확장하여 운영하고 있다. 탄뎀형 중국어교육은 몇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첫째, 중국어 학습 환경을 ‘CSL 환경화’할 수 있다. 한국 학생은 교실→탄뎀존 활동→기숙사로 이어지는 지속적인 중국어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교실 중심이었던 중국어 학습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

둘째, 학습자 스스로 학습계획과 내용을 설계하고 파트너와의 상호 보완적 학습활동을 해 나감으로써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셋째, 교과와 비교과의 통합 교육을 강화할 수 있다.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교과교육(교실탄뎀)과 교실 밖에서 이루어지는 비교과교육(기숙형 탄뎀, 탄뎀존 활동, 탄뎀문화체험 등)을 통해 교과교육 중심에서 교과와 비교과를 아우르는 통합형 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

넷째, 학습자는 자신의 중국어학습 동기와 목표를 지속적으로 재설정할 수 있다. 학습자는 중국 학생과의 협력형 학습을 통해 끊임없는 활용과 적용 훈련을 하게 되며 이를 통해 학습 동기가 강화되기도 하며 또 자신의 학습목표를 재설정하는 과정을 겪게 되기도 한다.

다섯째, 타문화에 대한 수용성이 넓어지며, ‘나’와 ‘우리’에 대한 인식이 강화된다. 실생활에서 중국 학생을 접하면서 중국의 생활문화에 대한 수용력이 커지며, 한국어 및 문화에 대한 교사 역할을 수행하면서 모국어와 모국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된다,

이렇게 볼 때, 탄뎀형 중국어교육은 중국어교육 뿐만아니라 협업역량, 공감력 등을 강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향후 다음과 같은 확장형 탄뎀 교육도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첫째, 탄뎀형 교사 파견이다.

양국의 교사가 상대국에 파견되어 자국의 언어문화교육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상대국 언어 및 문화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즉 소위 말하는 ‘国别化’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모국어 및 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것이다. 이는 모국어와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언어오류, 모국어 문화와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의사소통 장애, 비교문화적 지식의 부족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차별 의식 등 교육과정에 발생하는 제반 문제들을 진단하고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양국에 파견되는 언어교사들의 경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준비 내지는 교육 없이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는 자국의 언어교사 파견을 주도하고 있는 ‘세종학당’과 ‘공자학원’이 상호 보완적 각도에서 파견 교사에게 탄뎀형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탄뎀형 교육은 파견 전 에 상대국에 설립되어 있는 세종학당이나 공자학원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에 대한 이러한 교육이 사전에 시행된다면 파견 교사는 상대국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파견 초기부터 심리적 편안함 속에서 교육적 적응을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e-탄뎀을 활용한 교수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중국은 시차가 1시간 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화상 강의가 가능하다. 화상 강의는 교수 간의 협동 수업이 가능하며 특히 중국어를 배우는 한국학생과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학생이 1:1로 조를 이루어 상호 교환형 학습을 할 수 있는데, 교실뿐만 아니라 교실 밖에서도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공동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e-탄뎀을 활용한 언어교육은 학생을 외국어환경에 노출시킴으로써 목표어 사용시간을 늘이고 즉시적 개별 교정이 가

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소통을 지속적 소통을 통해 생활 문화적 교류를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효과적인 언어교육법이라 할 수 있다.

셋째, 교사 간 또는 연구자 간의 탄뎀형 교류가 필요하다.

한국 또는 중국에서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인 교사와 중국인 교사는 서로 상대의 언어적·문화적·교육적 조력자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세종학당과 공자학원, 또는 한국 대학과 중국 대학이 서로 협력하여 양국 교사의 탄뎀형 교류를 설계하고 지원한다면 교사 공동체가 형성되어 결국 자국 학생들의 학습 효과를 높이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또 연구자 간의 탄뎀형 교류는 동일한 전공 영역의 시니어 연구자 및 주니어 연구자, 혹은 상호 연구 영역은 다르지만 협력형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또 각 연구자들이 가지고 있는 연구자료의 공유를 통한 종합적 연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문제해결형 중국어교육

2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교육 3.0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기주도성, 사고력, 협업역량, 공감력, 융합능력 등의 핵심역량은 교육의 최종적 결과물이자 교육의 방법론이 될 수 있다. 앞서 제시한 All-Line 교육이나 탄뎀 교육은 모두 이러한 역량이 결과물이자 방법론이 될 수 있는 방안이다. 중국어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문제해결능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중국어교육→중국어 구사 능력 및 문화 이해 능력 제고→문제해결능력 강화’라는 흐름 속에서 중국어교육의 목표가 설정된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문제해결능력에 기반한 중국어교육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가 나타나고 있다. 엄광호(2010)는 고등학교 중국어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 학습 중심의 교수학습모형을 제시하였는데, ‘소개하기’, ‘한국음식’, ‘여행’, ‘인터넷’, ‘날씨’ 등 초급단계의 과제를 중심으로 수업지도안과 평가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이새한(2014)에서

는 대학교 중·고급 중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PBL 활용 수업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이 두 논문은 모두 수업 모형을 제안하는데 그치고 있어 실제 효과를 분석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장은영·정연실(2016)에서는 대학 초급중국어 단계의 수업에 PBL(Problem Based Learning)을 활용한 수업설계 및 결과를 분석하고 있는데, 학습자의 학습능력과 문제해결능력 향상, 협동심 강화 등의 여러 가지 장점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¹²⁾ 문제해결능력에 기반한 중국어교육 관련 연구는 아직은 이들 몇 편에 국한되어 있으며, 연구 내용에 있어서도 이론적 배경에 근거한 모형설계나 개별 교과목의 적용 사례에 머물고 있다.

중국어교육에서의 문제해결능력은 좁게는 언어적 소통을 통해 목적지를 찾아가고 음식을 주문하고 물건을 구매하는 것에서부터 넓게는 기업에서의 마케팅, 외교적 협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것이다. 이를 언어수준 단계에 비추어볼 때, 초급단계에서 중급, 고급단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층위의 문제해결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초급단계는 개인적 층위의 문제해결이 주를 이루게 되며 상위단계로 갈수록 사회적 층위의 문제해결이 요구될 것이다. 상위층위로 갈수록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언어적 능력 외에도 여러 가지 융합적 지식과 창의성이 요구된다. 현재의 중국어교육이나 교재를 살펴볼 때, 초중급 단계의 문제해결형 과제는 비교적 잘 제시되어 있다. 보통 중국어교육요목에서 ‘의사소통기능항목’이라 하여 ‘인사하기’, ‘질문하기’, ‘주문하기’, ‘사과하기’ 등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것이 초중급 단계의 문제해결 과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상위단계의 문제해결형 과제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상위단계의 과제는 이전 단계의 과제를 포함한 복합적 과제일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언어 외적 능력이 요구될 수 있다. 다음은 필자가 맡고 있는 3학년 『중국어언어와 문화』 수업의 예이다.

12) 장은영·정연실(2016:294)에서는 보완점으로 평가의 객관성 확보 방안, 수업환경의 차이에 따른 그룹조직 방식·PBL활용방식·교수자의 역할 변화 등을 들고 있다.

- 제1주차 과제
 - i) 중국의 해음(諧音)문화란 무엇인가?
 - ii) 해음을 활용한 예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iii) 당신이 광고를 했다면 어떻게 해음을 활용했을까?

본래의 표현	광고 표현	광고 상품
乐在其中 (어떤 일을 즐겁게 하다)		오토바이
一步到位 (일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다)		위장약
天长地久 (사랑이 영원불변하다)		술

- 제2주차 과제
 - i) 중국인은 색깔에 어떤 문화적 함의를 부여하고 있는가?
 - ii) 해당 색깔과 관련된 어떤 표현들이 있는가?
 - iii) 중국에서는 어떻게 상품에 색깔을 활용하고 있는가?
- 제3주차 과제
 - i) 당신이 휴대폰 케이스를 중국인에게 판매한다면 어떤 색을 활용하겠는가?
 - ii) 조별로 컬러 마케팅을 활용하여 휴대폰 케이스를 디자인하고, 해당 제품의 광고문구를 해음을 활용해서 만들어 보세요.

위의 예시는 중국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기업의 제품 마케팅과 접목하여 문제를 해결하게 한 것이다. 이러한 과제 수행을 위해서는 자기 주도성, 협업능력, 융합능력 등이 모두 요구된다. 물론 이는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지만 역량이 최종 결과물이면서 방법론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해결형 중국어교육은 기존의 언어나 문화 수업에 접목할 수도 있으며, 캡스톤디자인을 도입하여 집중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캡스톤디자인(Capstone Design)은 고학년(3-4학년) 학생들이 수행하는 종합 설계과목으로서 실제 현장에서 접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학부에서 배운 전공지식을 바탕으로 제품을 기획, 설계, 제작 평가하는 전 과정을 경험하게 하는 교과목이다. 캡스톤디자인은 과거에는 주로 공학 분야에

서 활용되었으나 최근에는 비공학분야(경영학, 인문사회과학 등)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대학에서는 2015년도부터 전 학과의 3학년 2학기과 4학년 1학기에 캡스톤디자인 과목을 의무 개설하고 있는데 ‘해외문화와 마케팅’,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비즈니스’ 등의 교과목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캡스톤디자인은 아직까지는 중국어교육 영역에 거의 도입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지만 상위단계 중국어교육의 문제해결형 수업으로 도입한다면 중국어교육 3.0에서 추구하는 학생들의 역량을 배양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문제해결능력은 학습의 각 단계에서 배양될 수 있으며 이러한 역량 배양을 위해서는 문제해결능력에 기반한 중국어교육 영역의 ‘CAN-DO-LIST’¹³⁾ 개발이 필요하다. 즉 기존의 ‘어휘교수요목’, ‘어법교수요목’, ‘문화교수요목’ 등 분절화된 언어요소 중심의 요목 개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문제해결 기반의 과제 중심 요목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 과제 중심의 중국어 ‘CAN-DO-LIST’는 초급에서 고급을 아우르는, 또 각 단계별로 요구되는 역량에 기반한 통합적이며 융합적인 성격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4. 나오기

본고는 본래 한중 수교 이후 비약적으로 성장한 한국의 중국어교육을 조망하고 이러한 발전을 토대로 향후 어떻게 이러한 발전을 지속하고 새로운 발전의 지향점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최근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으로 대두되고 있는 ‘교육 3.0’의 핵심 가치를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중국어교육의 목표를 어떻게 재설정할 것인지를 고민

13) CEFR(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 : Learning, Teaching, Assessment: 언어학습, 교수, 평가를 위한 유럽공통참조기준)에서는 언어 등급을 A1,A2,B1,B2,C1,C2의 6가지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 요구되는 언어능력을 ‘can do’ 형식으로 기술하고 있다.

하였다. 본고는 ‘중국어교육 3.0’이라는 제안을 통해 양적으로 성장한 국내 중국어교육의 질적 변화 가능성과 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몇 가지 초보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통합적 교육을 제안하였고, 둘째로는 한국의 중국유학생을 활용한 탄뎀형 교육을 제안하였다. 셋째로는 문제해결형 중국어교육과 이의 실현을 위한 중국어 ‘CAN-DO-LIST’의 개발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안들은 중국어교육이 ‘교육 3.0’에서 강조하는 21세기형 인재의 핵심역량인 자기주도성, 사고력, 협업역량, 공감력, 융합능력 등을 교육의 결과물이자 방법론으로 삼음으로써 중국어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아울러 학습자의 다양한 역량을 개발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이다. 향후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깊은 논의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參考文獻

- 안수웅, 「EFL 환경에서의 영어 조기 교육」, 『영어교육』43호, 서울, 한국영어교육학회, 1992.
- 손중선, 「EFL 환경의 영어교육적 의미:인식과 이해」, 『현대영어영문학』52-3호, 서울, 한국현대영어영문학회, 2008
- 라복순 외, 「한국어-일본어 탄뎀 수업 사례」, 『일본어교육』54, 서울, 한국일본어교육학회, 2010.
- 서상범, 「한국어-러시아어 탄뎀학습법을 이용한 수업모델 연구」,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36, 서울, 한국러시아문학회, 2010.
- 최윤경, 「블렌디드 러닝을 활용한 기초중국어 수업모형 개발 및 적용」, 『중국어교육과 연구』13, 서울, 한국중국어교육학회, 2011.
- 박찬옥, 「사례연구를 통한 블렌디드 러닝 기반의 중국어 회화수업 설계」, 『중국어교육과 연구』14, 서울, 한국중국어교육학회, 2011.
- 박찬옥, 「중국어 실습 교육을 위한 블렌디드 러닝 모델 : 말하기 수업을 중심으로」, 『중국어교육과 연구』16, 서울, 한국중국어교육학회, 2012.
- 박은미 · 위수광 · 임춘영, 「한중 수교 20년 간 국내 중국어 문법 교육연구의 성과 및 향후 과제」, 『중국어교육과 연구』16, 서울, 한국중국어교육학회, 2012.
- 박경송 · 심지연, 「한중 수교 20년 간 국내 중국어 기능교육 연구동향 분석」, 『중국어문논역총간』32, 서울, 중국어문논역학회, 2012.
- 양춘기 · 최재수, 「한중 수교 20년 간 국내 중국어 발음교육 연구경향 분석」, 『중국어문학논집』76, 서울, 중국어문학회, 2012.
- 오현주 · 노수미, 「국내 중국어 어휘교육 연구 현황에 대한 고찰」, 『중국어문논역총간』32, 서울, 중국어문논역학회, 2012.
- 천세영 외, 『스마트교육 정책 성과 지표 개발 연구』, 서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13.
- 장상현, 「교육3.0과 ICT 융합, 스마트교육」, 『한국콘텐츠학회지』11-1, 서울, 한

- 국콘텐츠학회, 2013.
- 이새한, 『대학교 중·고급 중국어 학습자를 위한 PBL활용 수업 설계』, 서울, 한국외국어대 교육대학원, 2014.
- 이현아 외, 「국내 중국어교육 관련연구 동향분석」, 『아시아교육연구』16-3, 서울, 서울대 교육연구소, 2015.
- 임지영, 「플립러닝을 활용한 중국어 어법 수업모형 설계 연구」, 『중국어교육과 연구』22, 서울, 한국중국어교육학회, 2015.
- 劉辰, 『중국인교수 교육력 제고 방안 연구』, 부산, 부산외대 석사논문, 2015.
- 김민영, 『어린이 중국어교육 연구』, 부산, 부산외대 박사논문, 2016.
- 장은영·정연실, 「PBL활용 중국어 수업설계 및 결과분석」, 『중어중문학』63, 서울, 한국중어중문학회, 2016.

Abstract

Chinese Education 3.0

Jung, Yun-chul

In China, This paper aims to explore Chinese education in Korea, which has grown swiftly since the normalization of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and to investigate how such development can be sustained as well as seeking out new ways to develop Chinese education. To this end, this paper reviews the key value of “Education 3.0,” a newly emerging paradigm in education, and discusses how to reset the goals of Chinese education under the influence of a new landscape for education. This study presents possibilities of qualitative changes in Chinese education, which has grown immensely in Korea, and also suggests several basic measures to elicit these changes through “Chinese Education 3.0.” First, it puts forward All-line education: integrating on-line and off-line learning. Second, it suggests tandem education by utilizing Chinese students studying in Korea. Third, PBL(Problem Based Learning) education and developing a Chinese “CAN-DO-LIST” are proposed in the research. The suggestions presented in this paper are based on the core abilities of “Education 3.0”: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of thinking, cooperation, empathy and convergence. Thus, by adapting them as a methodology and education outcomes, Chinese language learners will acquire various abilities and the effectiveness of Chinese education will be enhanced. The author hopes to see more in-depth research in this area in the future.

Key words : Chinese education, Education 3.0, on-line and off-line learning, PBL, Tandem

투 고 일 : 2016. 5. 10. / 심 사 일 : 2016. 5. 15.~ 2016. 6. 15. / 게재확정일 : 2016. 6. 16.